



지난 7월 20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치러진 '98 제3차 농어민 후계자 양성교육'

우 리네 양돈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근대적인 소규모 경종농업의 형태를 벗어나, 호수는 줄어들고 사육두수는 늘어나는 전업화된 하나의 기업으로 숨가쁘게 변화되어 왔다.

뚜렷한 축산물의 소비증가로 인한 사육두수 증가('89년 돼지 사육두수 48만두, '98년 6월 현재 74만 6천두)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 20만호에 달하던 양돈농가는 지난 '98년 6월 현재 2만 7천호에 그치고 있으며, 총 사육두수 74만 6천두 중 500두이상 사육농가에서 기르는 돼지수가 74.6%에 달하는 55만 9천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양돈호수의 큰 감소는 '9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계산업에 이어 양돈산업 또한 산업구조의 형태가 어느정도 이미 조정된 상태로 보여진다. 말 그대로 구정물 먹여 돼지 키우던 시절은 오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돈가가 폭락하면 금방 망하고 돈가가 폭등하면 한 몫 단단히 잡았던 주먹구구식의 경영으로도 꾸준한 축산물 소비증가에 힘입어 경영에 별 어려움 없이 여태껏 양돈업의 종사해 온



▲연수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받고 규율을 지킬 것은 선서하고 있다.

양돈인들은, 이제는 양돈인 특유의 거센 고집을 버리고 기술적이면서 논리정연한 경영을 하는 것만이 IMF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양돈가들은 똑똑하다. 우리 스스로 무지한 농민이라고 비하할 뿐, 세계 그 어느나라 축산인보다 많은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고, 더 많이 배우려는 의지는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지식습득에만 그칠 뿐 실제로 농장에서 적용하는 바가 적으며, 양돈 기술의 습득 또한 국내에는 겨우 사료회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가끔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직접 농장

에서 안전하게 실천에 옮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지난 '96년 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 이천의 '도드람 양돈 연수원'이다. 연수원은 우리나라 양돈인들의 양돈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과 정신교육을 통하여 양돈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나아가서 양돈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와 도시소비자에 대한 농촌 생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양돈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돈연수원은 네덜란드 바네벨트 대학처럼 모든 양돈인들은 다 거쳐야 하는 양돈인 전문교육 센터로서 국내 양돈산업의 일원화 균일화를 이루려는 큰 꿈을 키우고 있다.

150여회 7,00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

도드람 양돈 연수원의 정식 명칭은 '재단법인 도드람·농사문화재단 양돈연수원'이며, 처음 '94년 9월에 현 도드람 중부 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있는 진길부씨가 대산농촌문화 재단으로부터 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의 공적으로 농촌문화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3천만원을 받아 뜻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94년 10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출신들의 모임인 개척농사회의 정기총회(농사대회)에서 양돈연수원 설립취지를 알리고 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의한다.

그후 '95년 5월말 도드람4사에서 한국양돈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돈연수원 설립으로 이의 전국적 확산 보급을 기하기로 하여, '96년 3월27일 개원과 함께 제1기 교육을 시작했다. 초대원장으로는 진길부씨가 취임하였다.

정기적인 교육외에도 도드람 조합이나 사료, 다비유통 등에서 세미나를 한달에 2~3회 이상 개최하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연수원은 개원과 함께 '96년도에는 세미나 포함 교육일정 60회를 통해 2,000명의 전문인력을



▲(재)도드람·농사문화재단 양돈연수원 전경



▲지난 '97년에는 여름방학을 통해 '여성양돈인 특강'을 개설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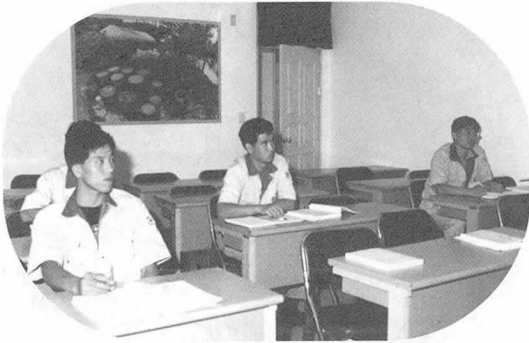
양성하였으며, 지난 '97년에는 99회 4,000여명이 연수원을 거쳐 갔다.

각 과정별로 구분하여 현장에 적용되는 교육

교육은 각 과정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중급과정은 일반 사양관리와 후보돈 도입부터 출하때까지의 기본 사양법을 익히며, 고급과정은 중급과정에 더해서 현황판, 농장기록, 장부 등의 작성을 통한 경영을 익힐 수 있으며, 컴퓨터 진단과 분석으로 FEED BACK까지 가능케하고 있다.

또한 특화과정을 따로두어 분뇨처리, PSY, AI, 인력관리 등 한 주제를 정해서 분야별로 심도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이런 교육들은 연수원에 접해있는 시범농장에



▲심도있는 강의를 통해 교육생들은 자신이 농장에 되돌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필자가 취재를 간 9월 3일에는 2층 대강의실에서 (주)다비인티의 종돈능력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다.

서 실습을 통해 직접 몸으로 익히게 하고 있어 자신의 농장에 가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 연수원에서는 연수원 부속 농장의 모델에 따라 PSY(모돈 1두당 연간 이유자돈 수) 25두 생산, WSY(모돈 1두당 연간 돼지고기 생산량) 2,500kg을 달성하고, 지육 kg당 생산비 1,400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양돈업계에서 현장경험이 5~10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타인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즉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과 이론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컨설트 등도 많이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입수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끝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 등 레크레이션과 함께 실습농장에서 생산한 가장 맛있는 돼지의 목등심 생고기 특미로 저녁식사를 내놓아 양돈인들에게 돼지고기의 진맛을 보여주고 있다.

연수원 김현덕 국장은 연수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가면서 항상 '잘 왔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갖는다며, 알찬 교육

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에게는 구전되는 소문으로 양돈연수원이 인정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많이 떠들고 막상 별볼일 없는 행사보다는 진정으로 실제 농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을 통해 우뚝 설 것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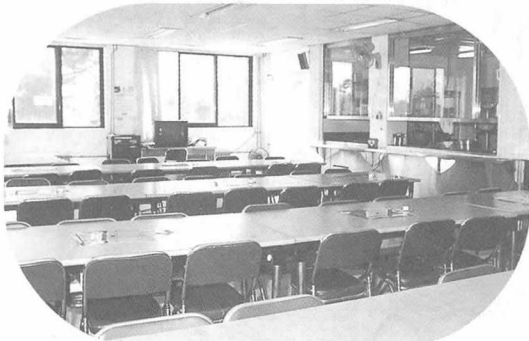
▲세미나에 열중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기술습득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모든 양돈가들이 연수원을 거쳐 사양 관리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

“연수생 여러분 모두가 따로 따로 시골 골짜기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이는 안테나를 항상 높이 세우십시오. 항상 많은 정보로써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안테나로써도 미비하다면 양돈 연수원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김현덕 국장은 최소한 2~3개월, 1년을 앞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양돈연수원이 양돈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연수원 올해 2,900명의 졸업생을 낼 계획이었지만, 힘든 현실과 시간상의 문제로 참여도가 올해들어 낮아지고 있어, 30여명 정원에 70%가량만이 참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양돈연수원 뒷편에 있는 실습농장을 통해 배운 기술을 손으로 익힐 수 있다.



▲생활관 1층에 있는 구내식당. 2층에는 30여명이 합숙할 수 있는 숙소가 있다.



▲생활관 뒷편에 있는 축산기자재 전시관

“저희 도드람 양돈 연수원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메카가 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바네벨트 대학처럼 모든 양돈인들은 다 거쳐가는 과정으로 바꾸어, 사양관리의 표준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표준화는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에 일조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술정보의 일원화와 평균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양돈인들이 한 군데로 모여지는 하나의 모체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라며, 정부에 농업중 최대의 수출 가능성을 가진 양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연수원의 발전을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돼지를 생산해서는 안됩니다. 돼지고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현재 제2대 원장인 홍성택 원장이 맡고 있는 도드람 양돈 연수원은 연수원을 거쳐간 모든 양돈인에게 돈우회보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한 홍보와 7,000여명의 전국에 있는 연수생들이 지역 양돈협회 지부 등을 통해 구전으로 전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양돈인의 70%정도는 양돈연수원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성 양돈인들의 교육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1년에 한차례씩 교육을 실시해 보았는데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1년에 한차례 밖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기까지 합니다”라며 연수원의 세부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김현덕 국장이 지난해 부터 실시한 ‘여름방학 특강 여성 양돈인 교실’이 성황리에 끝난 것을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 여성들은 일반 교육과 정에도 한달에 한 두명씩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WTO체제입니다. 정부주도로는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양돈인 스스로 경영계획을 세워서 생산, 판매하여야 합니다. PEED PACK까지 가능해야겠지요. 돼지를 생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양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유통구조 또한 양돈농가가 고급육 생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바뀌어야 하며, 양축농가도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춘 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따지는 예측과 분석, 경영능력을 가져야 합니다”라며 양돈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취재 : 조진현) **義豚**